상명대·광운대 불교동아리 창립

조계사, 1월 15일 창립식 개최
각 동아리에 지원금 500만원도
"주변 살피는 따뜻한 불자" 서원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서울 조계사는 1월 15일 관음전에서 '상명대 · 광운대 불교동아리 창립식'을 개최하고 전법 열기에 힘을 보탰다.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청년·대학생 포교 활성화 흐름이 병오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첫 불교동아리는 서울 상명대와 광운대에서 창립되며 전법 열기에 힘을 보탰다.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1월 15일 관음전에서 '상명대·광운대 불교동아리 창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과 신도지원단장 성해 스님을 비롯해 각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지도교수, 회장과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참된 불자의 길을 서원했다.

상명대 불교동아리(회장 이유경)는 맑은 인연이라는 뜻의 '청연(淸緣)'으로 이름 지어졌다. 교내 불교 문화와 신행 공동체가 부재한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문제의식과 필요로 설립됐다. 회원들은 2025년 2학기부터 월 2회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불교 기본교리를 익히고 화합을 다져왔다. 현재 1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템플스테이와 사찰 순례, 불교 관련 박물관·전시 관람, 사찰음식 체험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유경 회장은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인원이 늘고 있다"며 "격주 법회를 통해 일상 속에서 불교 교리를 자연스럽게 만나는 동아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광운대 불교동아리(회장 이원중) '청연(靑蓮)'은 학업과 진로 스트레스로 지친 대학생들이 마음을 쉬어가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2025년 2학기부터 창립 준비와 시범 운영을 거쳐 활동 방향을 정립했고, 현재는 가동아리 형태로 36명이 활동 중이다. 향후 주 2회 정기 법회와 교리·경전 스터디를 통해 정식 중앙동아리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원중 회장은 "창립을 선언했을 때는 회원이 2명뿐이었지만 현재는 36명으로 늘었다"며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겠다"고 전했다.

주지 담화 스님은 "조계사는 강북권을 대표하는 사찰로, 현재 22개 대학을 책임지고 있다"며 "그중 14개 대학에서 불교동아리가 운영 중이며, 이번 창립을 계기로 16개 대학으로 확대됐다. 모든 대학에서 불교동아리가 창립되고 정식 중앙동아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명대와 광운대 동아리 이름이 모두 '청연'이지만 하나는 '맑은 인연', 다른 하나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라는 뜻을 지닌다. 함께 이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불교적인 인연"이라며 "불교 용어가 어색한 학생들도 많겠지만, 지도법사 스님과 지도교수, 학생들이 함께 노력해 부처님 가르침 잘 배우고 행복한 동아리를 운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화 스님은 상명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로 법인 스님(소림사 총무국장), 지도교수로 이금룡 가족복지학과 교수를, 광운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로 정오 스님(조계사 포교국장), 지도교수로 황동욱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각 동아리 회장에게는 상월결사가 지원하는 불교동아리 운영지원금 200만원과 창립지원금 100만원, 조계사가 지원하는 불교동아리 발전기금 100만원, 학생회장 장학금 100만원이 전달했다.

법인 스님은 "불교를 잘 몰라도 편안히 마음을 쉴 수 있는 동아리가 되길 바란다"고, 정오 스님은 "청년들이 한국불교의 미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금룡 교수도 "학생들이 동아리를 운영하는 데 행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와 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학생 불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젊은 열정으로 전법의 길을 걷고, 언제 어디서나 주인으로 살며 주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불자가 되겠다"고 서원했다.

한편 조계사는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간 청년 대상 단기출가학교를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2월 14일까지 조계사 포교국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동참자들에게는 장학금이 지원된다.

한마음선원 태국지원 대웅전 상량…전법 '새 기틀' 마련

1월 7일 현지에서 상량식 봉행
지상 4층, 연면적 1669㎡ 설계
혜수 스님 "주인공 믿고 정진을"

한마음선원 태국지원(지원장 혜단 스님)이 1월 7일 지원 법당과 대웅전 불사 현장에서 화합재와 상량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상량식은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을 비롯해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광주지원장 혜월 스님,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태국지원장 혜단 스님 등 국내외 지원장 스님과 현지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롭게 조성되는 태국지원 대웅전은 연면적 1669㎡(505평)·건축면적 500㎡(151평), 지상 4층(22.8m) 규모로 지상 1~3층 각 431.38 ㎡(131평), 4층 371㎡(112평), 법당 273㎡(82평)으로 설계됐다.

법당에서 진행된 법회에서 참석 대중은 대행 선사의 영상법문을 통해 마음 불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후 대웅전 불사 현장으로 이동한 참석 대중은 혜공 스님의 집전으로 '자성본래불'을 정근하며 상량보를 올렸다. 상량보에는 대행 선사의 법문 "공생·공심·공용·공체·공식으로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 걸림이 없어라. 아미타 한도량"이라는 말씀이 새겨졌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치사를 통해 "태국지원 불사는 본원을 비롯한 국내외 지원 모두 한마음처럼 여기는 모든 도량의 불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행 선사께서는 항상 '주인공을 진짜로 믿으라'고 하셨다"면서 "주인공을 믿고 정진하면 남은 불사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은 격려사에서 "오늘 이 도량이 '걸림 없는 아미타 한마음 도량'이라고 했다. 아미타의 '아'는 '없다'는 부정사고 '미타'는 '수명', '시간'을 의미한다"면서 "수명이 없다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한계를 벗어난 자리, 그곳이 바로 한마음 주인공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대웅전 불사를 이끌고 있는 태국지원장 혜단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정말 힘들 때 법당에 앉아 '대행 선사도 부처님도 다 아시겠지. 나는 그냥 심부름만 하자'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오늘까지 오게 됐다"고 회고했다.

한편, 대웅전 상량을 마친 한마음선원 태국지원은 올해 말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130년 만에 인도 환지본처 '피프라와 불탑'

영국 식민지 이후 최초 일반 공개
"진신사리는 부처님 현존 의미"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멸 후 건립된 근본 8탑 중 하나인 피프라와 불탑의 유물들이 1월 3일 인도 뉴델리에서 일반에 공개됐다. 약 130년 전 영국 식민지 시대에 발굴된 이후 인도에서 최초로 모든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개된 전시다. 이 역사적인 전시에 대해 국제불교 뉴스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과 '더 인디안 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들이 집중보도했다.

'피프라와 컬렉션'으로 불리는 이 유물들은 1898년 영국인 윌리엄 클랙스턴 페페가 현재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소재한 피프라와 불탑에서 부처님 진신사리와 함께 발굴된 것이다. 발굴 당시 페페는 발굴한 유물 대부분을 당시 인도 식민정부에 넘겼다. 유물 대부분은 콜카타 박물관에 이관됐으나 사리 일부는 태국으로 옮겨져 법적 발굴자인 페페가 유물의 5분의 1을 소유하게 됐다.

그러나 페페 가문은 소유한 유물들을 2025년 5월, 홍콩 소더비 경매에 출품했고 예상 시작가는 130만 달러였다. 이 경매계획이 공개되자 전 세계 불교계는 일제히 성토했다. 특히 인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외교적 개입을 선언,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매가 취소됐다. 이후 유물들은 인도정부와 고드레즈 인더스트리 그룹(Godrej Industries Group)의 민관 협력을 통해 7월에 인도로 반환됐다.

1월 3일 뉴델리의 라이 피토라 문화 컴플렉스(Rai Pithora Cultural Complex)에서 개막한 피프라와 유물 특별 전시회 '빛과 연꽃: 눈을 뜬 이의 유물들'은 콜카타 박물관, 뉴델리 국립박물관 소장의 유물과 함께 환수된 유물을 모두 한자리에 모은 전시다. 이 전시는 19세기 후반, 발굴이 이뤄진 이래 불사리를 포함한 모든 유물 컬렉션이 한자리에 모여 인도 대중에게 공개되는 첫 번째 사례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는 부처님의 성스러운 사리를 봉안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전통을 계승하는 나라이기도 하다"며 "인도의 문화유산인 이 성보들은 100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마침내 조국으로 돌아왔다"며 기쁜 마음을 밝혔다.

이번 전시는 피프라와 불탑의 복원 모형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생애 △불교의 가르침과 미학 △전 세계로 확장된 불교미술 △문화재 환수와 노력 등으로 구성됐다. 인도 문화유산연구소의 사비타 쿠마리 부교수는 이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단순히 역사적 위인이 아닌, 실제로 존재한 한 인물로서의 석가모니를 실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쿠마리 부교수는 "부처님은 실제로 이 유물 안에 깃들어 계신다고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진신사리는 부처님의 현존을 증거한다. 이는 인도국민들과 많은 전세계의 불교도들에게 정서적, 정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환수된 피프라와 유물들을 이운하는 인도 문화부 가젠드라 싱 쉬카왓 장관(가운데)과 불교계 대표들.
사진 출처=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